코스콤 ⊠ NICE평가정보 '비 마이 유니콘'활성화 위한 MOU

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**코스콤의 다양한 활동**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비상장 기업들의 정보공유 통해 마켓플랫폼 신뢰도 확보

□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(이하 '비 마이 유니콘')에 등재된 비상장 기업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코스콤과 NICE평가정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□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NICE평가정보(사장 심의영)와 함께 비 마이 유니콘을 활용하는 비상장 기업들의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코스콤 여의도 본사에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.

□ 양사는 협업을 통해 시장에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프로세스를 확보해, 기존 비상장 주식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투자접근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□ 구체적으로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▲비 마이 유니콘에 NICE평가정보의 신용⊠기술평가 서비스 제공 ▲플랫폼 등록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도모 ▲투자활성화 및 등록 기업들의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NICE평가정보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용 및 기술평가기관이다.

□ '비 마이 유니콘'은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'유니콘 기업'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(BaseCamp)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코스콤 미래성장본부의 브랜드다.

□ 비상장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이후 주주명부 변경까지 비상장주식 거래 전 과정이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.

□ 중소벤처기업들은 주주명부 관리부담을 줄이고,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불안감을 덜 게 되며 최종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여기에 비 마이 유니콘에 등록된 비상장 기업들은 보유기술⊠제품 홍보부터 기술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자금조달까지 한 플랫폼 내에서 한 번에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.

□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코스콤 미래성장본부 김계영 본부장과 NICE평가정보 기업사업본부 정종규 본부장은 '비 마이 유니콘'이 플랫폼의 이름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.